

# 여수시, 제11회 여수에코국제음악제 오는 25일 개막

## 음악 너머, 감각을 열다' 주제로 4일간 클래식 향연

여수시가 주최하고 (재)범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1회 여수에코국제음악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음악제는 김민지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 50여 명이 참여해 깊이 있는 클래식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6월 25일과 26일 오후 7시 30분, 27일과 28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올해 음악제의 주제는 '新世[啓] - 음악 너머, 감각을 열다'이다. '신세계(新世啓)'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클래식을 청각을 넘어 관객의 감각과 상상력을 깨우는 새로운 예술 경험으로 구현한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세계 초연되는 여수 창작곡 '아름다운 여수'를 비롯해 클래식 명곡과 현대 실내악, 오페라 아리아, 영화음악 등 다채로

운 프로그램으로 폭넓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8일 여수영재교육원오케스트라 공연과 컬처 브릿지 '넷제로 페스타(Net-Zero Festa)'가 마련된다.

또한 장도·거문도·금오도·개도·남도·하화도 등 여수 대표 섬을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지역과 중앙, 섬과 섬을 잇는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간다.

공연 티켓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전 좌석 5만 원이다. 관련 문의는 (재)범민문화재단(☎061-666-3139)으로 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에코국제음악제가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추억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제는 클래식을 넘어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예술 경험을 선보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세계 초연 작품과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에게 폭넓은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문화교류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여수 대표 섬들을 찾아가는 순회 공연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중앙, 섬과 섬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네트워크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연은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를 꾸민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빈 기자



제11회 2026여수에코국제음악제 포스터

/여수 시청 제공

# 순천시, 대학생들의 '슬기로운 방학생활' 지원

순천시가 지역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공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2026년 여름 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을 모집한다.

이번 직장체험은 대학생들에게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행정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진로 탐색과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25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6월 22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현재 취업 중인 자와 행정인턴, 대학생 직장체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연수생은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순천시청,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보조, 민원 응대 지원, 자료 정리 등 공공부문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유빈 기자

# 광양대전환위원회, 2차 합동워크숍 개최...분야별 핵심 과제 점검

민선 9기 광양대전환위원회(위원장 이명우)가 지난 22일 성황스포츠크터 세미나실에서 2차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은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과 이명우 광양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의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분과위원회별 주요 사항 보고와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박성현 당선인은 '산업도시를 넘어, 호남 제1경제도시를 향한 마스터플랜'을 주제로 산업구조라는 뼈대 위에 문화·교육·의료·예술·관광 인프라를 결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분야별 주요

핵심 사항과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학)는 주력산업 집체와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행적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확보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략적 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 첨단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미래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도덕희)에서는 5대 대전환 종합계획 로드맵과 AI 첨단도시 대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미래전략특위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분야별 대전환 계획을 종합해 광양의 미래 10년을 담은 「광양 미래비전 2035」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유빈 기자

# 기후부 장관, 곡성 침실습지 방문... 섬진강 통합관리 거점 역할 주목

전남 곡성군은 지난 17일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섬진강 유역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국가습지보호지역인 곡성 침실습지와 섬진강·보성강 합류부를 직접 방문해 생태복원 현황과 유역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남원 홍수통제시설, 곡성 침실습지와 섬진강·보성강 합류부, 구례 수달생태공원, 하동 송림공원, 광양 배알도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섬진강 유역 전반의 이·치수와 생태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곡성군은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침실습지를 중심으로 훼손지 복원사업과 생태계 보전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유역 중심부에 위치해 상·하

류를 연결하는 통합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곡성군은 섬진강 유역이 영산강과는 다른 자연환경과 재해 양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동일한 행정 체계 아래 관리되고 있어 유역 특성을 반영한 전담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0년,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경험한 이후 재난 대응과 수질 관리, 생태 보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군은 섬진강유역환경청이 곡성군에 신설되는 경우 유역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생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유역 간 협력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일규 기자

# 구례군,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최우수 기관상 수상

구례군은 지난 18일 개최된 「2026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담당자 연찬회」에서 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찬회는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및 관계기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공유와 수계관리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구례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적극 추진하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달성도와 유지에 힘써왔다. 특히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친환경적인 지역개발과 건강 수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

한 지도·점검과 가족분뇨·야적폐비 관리 실태 확인을 통해 수질오염 예방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사업을 운영하며 하천변 환경정화 활동과 지속적인 순찰·제도 활동을 실시하는 등 섬진강 수계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구례군의 지속적인 수질관리 노력과 환경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기관상 수상은 섬진강 수계의 수질보전과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와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섬진강의 청정한 수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선성 기자

